

# “꿈 속 악한 자신의 모습 자책 마세요”



##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 24 악몽이 악몽이 아닌 이유

#### 악몽에 시달리다

‘아앗!’

J씨는 식은땀을 흘리며 꿈에서 깨어났다. 최근 들어 자꾸만 반복되는 똑같은 악몽이었다. 꿈속에서 그는 힘이 세고 싸움을 잘 한다. 사슴들과 끊임없이 싸우면서 무자비하게 칼로 마구 찌르고, 그들이 죽는 것을 보고 미소까지 지으면서 만족해한다.

양심의 가책 같은 것은 전혀 없었다. 꿈을 깨고 나면 끔찍했다. 사람을 죽이는 것도 질색인데, 더구나 꿩과도 잔인한 마음까지... 별별 떨릴 지경이었다. 도무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다.

J씨는 평소 폭력을 싫어했다. 그런데 내 속에 이런 악한 마음이 있었던 말인가. 더군다나 청년 시절부터 사찰에 다닌 자신이 아닌가.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지는 못할망정 이게 웬일인가?

왜 사상이 넓은 지금에 와서 이런 꿈을 꾸단 말인가. 아내가 “어보, 당신 요즘 가위 놀리는 것 같은데요?” 했지만 꿈 얘기를 할 수가 없었다. 악한 습성이 남아 있거나 전생에 악한 일을 한 것 아니냐고 할 것 같아 두려웠다. 사흘이 멀다 하고 악몽이 계속되며 석 달이 넘어가자 그의 얼굴에까지 짙은 그림자가 생길 지경이었다. 그는 잠자는 것이 무서웠다.

마침내 스님께 털어놓으며 “이런 악한 꿈을 꾸

니 업장 소멸 기도나 참회를 해야겠지요?”하고 물었다. 뜻밖에도 스님은 “왜 그 꿈이 나쁘다고만 생각하세요?” 하시는 게 아닌가. 멍해졌다.

#### 왜 악하다고 생각하세요

“거사님, 지금 입장으로부터 생각하면 악한 일이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 생 뿐 아니라 과거에

#### 꿈 속 잔인한 자신의 모습에 ‘경악’ 몇달째 악몽 시달리다 스님과 면담 과거 생 업식 인정하고 웃음 되찾아

수없이 많은 생을 살아왔어요. 생각해 보세요. 인간 역사에 동서를 막론하고 전쟁 없는 때가 없었나. 더군다나 예전에는 인연이나 민주주의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잖아요. 전쟁이 나면 잘 싸우는 사람이 영웅이 아닙니까? 거사님도 예전 한 때 전사였다고 생각하세요. 부처님법도 불렀을 테고, 그대야만 살 수 있었으니까요. 그 때에는 적국의 사람들을 죽여야 내가 살 수 있었고, 내 가족과 내 민족이 사니까 양심의 가책이 있을 리가 없지요. 다 인간 의식이 발달하지 못한 탓이지 거사님 탓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꿈속의 자신을 악하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인정

해 주세요.” “왜 계속 꿈에 나올까요.” “업식이 남아 있었겠지요. 싫어하고 두려워하면 더 계속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중요해요. 그대로 인정해주세요.”

#### 한 생각의 차이

그 말을 듣는 순간 J씨의 마음에서 마치 먹구름이 걷혀나가는 것 같았다. 그래, 예전에 불렀을 때의 내 모습이다.

그 때는 어쩔 수 없었다. 잘 싸우는 것이 최고였겠지, 그게 살아남는 길이요 애국이었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이었고, 악한 게 아니다. 그렇게 마음이 편치자 얼굴도 확 펴지는 것 같았다.

집에 가니 아내가 “당신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었어요?” 한다. 속으로 ‘그래, 악몽이 악몽이 아니었어!’ 했다. 살려면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 “그런 나쁜 꿈이다”에서부터 ‘괜찮다’로 바뀌자 믿을 수 없을 만큼 마음이 편해졌다.

그 날 밤도 같은 꿈이었지만 깨어서는 편하게 생각했다. 나쁜 꿈이 아니다. 괜찮아! 그러자 날 아갈 것 같아 마음이 가벼워졌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니 저절로 그 꿈이 사라져 버렸다. 몇 달 후 또 한 번 같은 꿈을 꾸었으나 더 이상 J씨에게는 악몽이 아니었다. 이전 신경 쓰지 않게 되었다.

“석 달을 꿈공 안았었는데... 똑같은 꿈에 대해 생각 하나를 바꾸자 완전히 딴 세상이더군요.” 이거구나! 바로 이 말씀이구나. “한 생각에 수미산만한 업을 지을 수도 있고, 부술 수도 있다. 막히게 하는 것도 풀리게 하는 것도 오직 자기 마음이다.”

J씨는 부처님께 감사하며 한 생각을 잘 다스려야 하는 중요성을 절감했다고 한다.

■황수경(동국대 선행과 강사)



## 월암 스님의 禪과 노동 6

# 백장청규, ‘노동=수행’ 계율관 정립 (百丈清規)

<임간록(林間錄)>에서 백장의 삼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설하고 있다.

대지(大智: 百丈) 스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교화에서 쓰는 말들은 대체로 삼구(三句)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는 처음? 중간? 마지막의 선(初中後善)이다. 처음은 그에게 선한 마음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며, 중간은 그 선을 부수는 것이며, 마지막에 가서야 비로소 선을 밝힌다. 이를테면 ‘보살은 곧 보살이 아니라, 그 이름이 보살이라 한다(菩薩非菩薩是名菩薩)’고 한 것이나, ‘법은 법이 아니며 그렇다고 법 아닌 것도 아니다(法非法非非法)’라고 한 것이 모두 그러한 형식이다. 그러므로 만일 일구(一句)만을 설하고 답한다면 그것은 사람을 지옥으로 끌어들이는 일이며 삼구(三句)를 한꺼번에 설하면 그 스스로가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이니 부처님의 일과는 상관없게 된다.<林間錄>권, 禪林古鏡叢書, 藏經閣, p.97-98)

백장이 말하는 초선은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하나의 입장을 지키는 것이며, 중선은 초선의 입장을 부정하는(버리는) 것이며, 후선은 초선의 입장을 버렸다는 생각조차도 버리는 것(부정의 부정)이다. 다시 말하면, 초선은 어떠한 법에도 집착하지 않는 것이며, 그 집착하지 않음이 옳다고 여겨 거기에 머무는 것이니, 이는 곧 이승(二乘)의 경지이다. 중선은 이미 집착하지 않고, 나아가 그 집착하지 않음에도 머물지 않는 것이니, 이는 곧 보살승(菩薩乘)의 경지를 가리킨다.

후선은 이미 집착하지 않음에 머물지 않게 된 후에 또 애착하지 않음에 머물지 않는다는 지해(知解)마저 소탕해 버리는 불지(佛地)의 경계이다.

그러나 백장은 이 세 경지는 각각 하나의 지위에 머물러 있는 것이므로 완전한 최상승이 아니라고 말한다. 최상승의 깨달음은 세 경지, 즉 삼구를 투과하여 그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허공과 같은 경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삼구를 투과한 경지가 바로 마음이 허공과 같이 되고, 또한 허공과 같다는 생각이 없는 최상승의 경계이므로 유무(有無)가 자취도 없이 소탕되는 것인데, 죄가 어디에 번색을 들어 낼 수 있겠는가라고 설하고 있다.

위의 문답에서 백장이 관찰하고자 했던 의지는 출가 수행자가 생산노동에 종사하는 것은 계율에 저촉되는 일이라는 하지만, 이러한 유상계율(有相戒律)의 계율의 한계를 무상계율(無相戒律)의 본원인 자성정심(自性正心)의 발현으로 극복하고자 했던 것이다. 즉 계상(戒相)과 죄상(罪相)의 이원성(二元性) 집착과 불집착을 초월한 근원적인 정심(正心)의 경지에서 이 문제를 초극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정신은 백장이 청규를 제정할 때에 “어떤 사람이 <유가경(瑜伽經)>, <역락경(楞羯經)>은 바로

대승의 계율인데 어찌 그것에 의해서 수행하도록 하지 않습니까?”라고 묻자 아래와 같이 대답하고 있다. 내가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것은 대소승의 계율 조목에 국한하지 않고, 또한 대소승의 계율정신에 위배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 마땅히 두루 대소승의 계율을 섭렵하고 잘 절충하여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 수행에 힘쓰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傳燈錄>권제 6, <大正藏>제51권, p.251-1)

선종이 중국적 불교의 색채가 농후 하듯이, 백장은 중국의 환경과 풍토에 맞는 계율관을 정립하고 있다. 이미 시간과 공간의 상이점에서 오는 여러 가지 계율조목에 대해 보다 적극적, 객관적, 현실적인 관점에서 다시 응시하여 중국적 입장의 새로운 규범을 제정하여 실천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그것이 바로 중국선종의 계율이라고 할 수 있는 ‘백장청규(百丈清規)’인 것이다. 이렇게 하여 불교교단에서 출가 수행자의 노동생산의 문제는 정상적인 수행생활로 정착하게 된 것인데, 이것은 불교 교단사를 통틀어 전무후무한 획기적 사건으로 서양의 종교개혁에 비

#### 중국 환경·풍토에 적합한 규범 제정

#### 백장청규 시행 선문 독자적 수행 가능

견할 수 있다. 아울러 엄격한 의미에서 백장청규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선문의 독자적인 수행’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송고승전>에서 천녕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천하의 선종이 풀을 넓게 하는 것과 같이 선문의 독자적인 수행도 회해선사로 말미암아 시작 되었다.<宋高僧傳><大正藏>제50권, p.771-1)

그러면 ‘백장청규’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가? 아쉽게도 ‘백장청규’의 전체 내용이 전해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그 전모를 파악할 수는 없다. 다만 그 대강(大綱)과 면목은 <위산영우선사어록> 및 <진주입제해조선사어록> 등에서 그 관리를 엿볼 수 있고, 백장 원적 후 약 100년경 송 천녕의 <대승승사략(大宋僧史略)>, 그리고 그로부터 약 10년 늦어서 경덕 원년(景德元年: 1004) 한림원의 학사 양역(楊億)의 찬인 <백장청규>의 서문<경덕전등록>은 동서(同序)를 <선문규식(禪門規式)>으로 하여 <백장선사전>의 말미에 부록함) 가운데서 볼 수 있을 뿐이다.(회법해역주, 고려관<禪苑清規譯註>, 가산불교문화연구원, p.20-21)

본고에서는 그 목적이 의해 백장청규의 전체 내용 가운데 ‘보정(普請)’에 대해서만 살펴보고자 하였다. <선문규식(禪門規式)>에는 ‘보정(普請)’에 대해 이렇게 설하고 있다. “보정을 하는 것은 위와 아래가 힘을 합치는 것이다.” (계속)

#### 산행계시판

●**강화 선원사 연꽃축제**=강화 선원사가 8월 1~5일 연꽃제를 개최한다. ‘팔만대장경 이운법회’를 비롯해 전통문화공연, 연꽃노래자랑, 지역작가 초청전, 연꽃 사진전, 농산물 한미방, 연음식 경진대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032)933-8234

●**영불만일회 여름성지대회**=전국영불만일회가 7월 29~31일 10차년도 여름성지대회를 개최한다. 백담사 만해마을과 건봉사에서 열리는 이번 성지대회는 영불다짐대회와 1일 아미타불 1만 번 정권기도, 다도 퍼포먼스, 찬불가 공연 등으로 진행된다. 1998년, 27년 5개월의 영불결사를 시작한 전국영불만일회는 전국의 영불 성지를 순례하며 영불결사를 이어가고 있다. 여름성지대회 참가비 7만 원. (02)732-1215

●**제2회 초의선사 다도 아카데미**=해남 대흥사가 제2회 초의선사 다도 아카데미를 8월 1~5일 개최한다. 차의 성지 대흥사에서 다도를 배우는 제2회 초의선사 다도 아카데미는 차 재현, 다도, 차 이론교육, 차 명상 등을 공부할 수 있다. 매일 아침 행선과 새벽 승길 산책을 통해 마음도 다스린다. 마지막 날인 5일에는 수계식도 병행한다. 동참비 10만원. (061)534-5502

●**금산사 어린이 캠프**=금제 금산사가 수행과 체험 등 성인과 어린이를 위한 불교문화체험 프로그램을 내놨다. 7월 27~29일 10~13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어린이 여름캠프를 마련한다. 참가비는 5만원. 19세 이상 성인들만 참가할 수 있는 수행 프로그램 ‘불자’를 개최하는 8월 3일~7일, 9월 13일~19일 진행

된다. 동참비는 8기 15만원, 9기 20만원이다. (063)648-4441

●**화림원스님과 함께하는 좌선 템플스테이**=남원 실상사가 스님들의 수행처인 화림원에서 스님들과 함께 수행하는 ‘화림원 스님과 함께하는 좌선 템플스테이’를 운영한다. 이번 템플스테이는 1차 7월 26~29일, 2차 8월 2~5일, 3차 8월 9~12일, 4차 8월 16~19일 등 총 4차례 걸쳐 진행된다. 2차는 단식 템플스테이다. (063)636-33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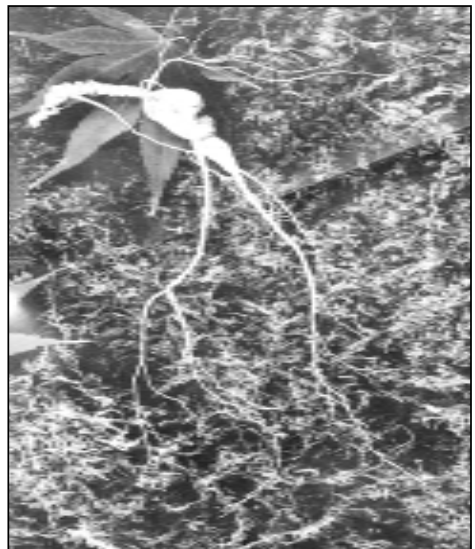
●**한산선사 수행회**=제주 원명선원은 7월 26~8월 1일 한산선사 7일 집중 삼매체험수련회를 개최한다. 고등학생 이상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고 7월 25일까지 선착순 50명을 모집한다. (064)755-3322

## 元·氣·回·復

#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을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식물은 본초에는 上蔘 120가지 中蔘 120가지 下蔘 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蔘중의 첫째가는 君蔘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식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중, 지중, 인중, 정처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정처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 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 산삼의 효능

-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이완성,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민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진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비기를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정육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 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貴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修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墅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서울 (02) 713-7798

- 별도산삼(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산삼(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검정필(분석 51160-150) 심마당 長腦 山蔘

자연, 그 순수한 아름다움을 담은 가구

월빙기구의 대명사 - 덕심

# 마지막 남은 소나무(육성) 茶心마루 공장직판

자연의 향기를 담은 한 잔의 차처럼... 현대인의 심신에 휴식을 전하는 원목가구 - 다심마루

## 도매가세일 한정판매

구분	크기(mm)	판매가(원)	할인가(원)
도심	1200×600×300(소)	300,000	160,000
중심	1300×770×300(중)	400,000	200,000
표심	1500×770×300(대)	500,000	260,000
심대	1800×770×300(특대)	600,000	300,000
침대	2100×1700×320	2,000,000	1,400,00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곡선침대



●직선좌탁

시중에 일부 유통되고 있는 무늬목 좌탁과는 비교하지 마십시오!

- ▶ 육성좌탁은 완전 수공 짜맞춤 방식으로 만들어진 명작입니다.
- ▶ 대량 생산이 불가능하고 100% 수작업으로 제작.
- ▶ 소재: 우리나라 토종 소나무 육성(육성) 사용
- ▶ 시공: 차폐, 거실의 외벽, 소파대용 의자, 개인침대, 학생부상, 책상 등
- ▶ 사용법: 물걸레질이 가능하며 주기적으로 기름 칠(들기름)을 해주면 나무가 기름을 빨아들여 윤기가 돌고 손때가 묻으면 반질반질해져 숲속 그 가치가 더해짐.

주문처 080-999-1080  
입금계좌:농협 177483-51-071977(예금주:천소현)